문준호
산업단지정책해커톤 참가자
• 현대위아 사원

현대위아 문준호 기술사원에게 이번 '산업단지 정책 해커톤'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성'의 가치로 산단의 미래를 재정의한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일단 시도하고 수정해 나가는 유연한 팀워크로 마시멜로 챌린지 우승을 이끈 '청심환' 팀의 발표자로서, 그는 청년들이 산단에 적응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관계 형성 기회의 부족'에 있음을 설파했습니다. 산단을 닫힌 생산기지가 아닌 지역 축제와 연결된 삶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자는 '산단 한마당' 제안은, 안팎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접점을 만듦으로써 서비스디자인이 나아갈 진정한 관계 중심의 해법을 선명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즐겁게 살아가려면 관계가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정책 해커톤 참가자, 현대위아 기술사원 문준호 인터뷰

큰 포부를 가지고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Q. 처음 이 해커톤에 참여한다고 들으셨을 때, 솔직히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A. 엄청 큰 포부를 가지고 참여한 것은 아니었고, 처음 해보는 활동, 해커톤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산업단지는 재미없고 딱딱한 곳입니다

Q. 행사 전에는 산업단지를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A. 지금도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지만 재미없고 딱딱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Q. 1박 2일 동안 가장 기억에 남은 장면은 무엇이었습니까?

A. 다양한 산업단지에서 모인 분들과 발표 준비를 하기 위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분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이번 해커톤처럼 다양한 출신의 젊은이들을 만나 산업단지와 자기의 삶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타지 청년에게 산업단지는 적응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Q. '이건 진짜 산업단지 현장의 문제다'라고 느끼신 순간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A. 저는 지금까지 인천, 안산 등 많은 산업단지를 다니며 직장생활을 했었습니다. 산업단지의 문제라고 한다면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외부에서 온 타지인이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산업단지는 말 그대로 많은 기업이 모여있는 곳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산업단지는 타지의 청년들에게 많은 매력을 느끼기는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 문화여건 등에서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는 근로자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Q. 해커톤 하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활동 중에 바뀐 부분이 있었다면 무엇이고 왜

바뀌게 되었나요?

A.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산업단지와 관련이 있고 관심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업단지는 단순하게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공직자, 지역주민 등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해커톤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즐겁게 살아가려면 관계성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Q. 가장 공감하신 아이디어는 무엇이었고, 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A. 정확히 아이디어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산단 근로자들끼리 모여 채소를 재배하고 후에는 수확까지 하여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아이디어가 가장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청년 정책도 '관계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도 예산이 많이 들면 실행은 어렵습니다

Q. 반대로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행은 어렵겠다'고 느끼신 아이디어가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A. 아이디어는 좋지만 예산이 많이 드는 청년 활동 전용 건물을 만드는 아이디어들은 실행이 어렵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지역과 직군이 모이니 산단마다 다른 문제가 보였습니다

Q. 서비스디자인 방식이 일반 회의나 일반적인 워크숍과 다르게 느껴진 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산단 근로자의 경험과 마음에서 시작하고, 창의적으로 풀어가는 서비스디자인 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A. 1박 2일로 진행되고 또 다양한 지역, 직군이 모여서 일반적인 워크숍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이 지역은 또 이렇게 다르네'라고 느꼈고 각 산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웃고 즐기려면 관계성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Q. 이 해커톤 이후 산업단지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산업단지 정책이 많은 방향이 있겠지만 청년들이 웃고 즐길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에서 온 청년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이어주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 그것이 청년들이 산업단지 생활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와 교통이 가장 불편합니다

Q. 평소 산업단지에서 가장 불편하다고 느끼셨던 장면 하나를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A. 우선 첫 번째는 주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는 말 그대로 회사가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회사 기숙사가 없는 한 청년 근로자들은 근처 주택지에서 자취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산업단지 근처에 주택가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산업단지이면 많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 문제입니다. 산업단지는 대부분 제조업 기반 회사들이 많은 만큼 각 기업 출퇴근 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3교대, 2교대 등 회사의 특성에 맞게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차가 없는 경우는 출퇴근이 힘들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회사 통근차량이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통근버스도 없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출퇴근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와의 연결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 지하철을 이용하여 생활범위가 넓어지지만 지방 산업단지는 생활반경이 정말 좁습니다.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KTX 역도 멀거나 배차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산업단지를 지역소멸 시대의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Q. 행사 이후에도 계속 다뤄졌으면 하고 생각하는 산단 생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A. 아직까지 청년들이 느끼기에 산단 생활은 많이 팍팍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수도권 선호 현상을 보면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산업단지를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소멸 시대의 기회로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문제를 근로자들의 시선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및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시각을 검토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 관계성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는 산업단지에서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타지에서 온 청년에게 새로운 관계를 이어주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산업단지 정책이 청년을 붙잡기 위해서는 일자리만 말해서는 부족하다. 청년이 살 곳, 이동할 방법, 만날 사람, 함께할 활동이 있어야 한다. 그가 말했듯, 관계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가 결국 산업단지를 일터에서 삶의 터로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인터뷰
풀버전 보러가기